

브로일러산업의 발전과 조직

인터뷰

육계산업은 점차 첨단산업화
고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안정된 산업으로 발전
정착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박영인 회장을 통해
그 전반을 들어본다.

브로일러산업

기자 : 박회장님께서 보시는 21세기 우리나라 브로일러 산업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세요?

박영인 :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브로일러 산업이 상당히 안정된 산업으로 정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 볼 때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현재 3kg에서 앞으로는 10kg까지 소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은 3배정도 신장된다는 이야기인데 축산학회 등 연구기관에서는 과거의 소비증가추세를 전제로 계산하여 2배정도로 보나 최근 너겟 등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젊은 소비층이 넓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외식산업의 발전 등 2000년대 초반에는 1인당 닭고기 소비가 10kg정도가 된다는 예측이 무난할걸로 봅니다. 이런정도로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산업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원활한 국내생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제가 제도적으로 산업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급측면인데 2000년에 이르러서는 산업구조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막연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합리화와 체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경영면에서 상당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심지어는 일본을 비롯하여 여러국가에 닭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까지도 갖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공급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할 수 있는 공급능력까지 갖추어져 산업이 안정될 것입니다.

다. 이러한 경우 생산의 기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5만수 정도의 규모에서 완전히 기업화되고 공업적인 생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계열주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이 산업구조 자체가 안정화 되어야 규모 확대가 될 수 있고 생산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적 양계경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득보장이 합리적인 산업구조의 전제 조건이고 소득이 보장되려면 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가격이 안정될려면 수급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급측면에서의 산업구조가 합리적으로 되려면 산업구조 자체가 완전히 기능을 분담해서 농가에서 해야 할 일과, 농장의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도계처리 유통소비등) 기능적으로 분업화되어 생산에서 소비에까지 통합이 이루어질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 각자는 자기기능에 비례한 공정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21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정착되어 산업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기자 : 계열화가 이루어 질때 계열주체는 누가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박영인 :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2차산업의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일정 수준으로 접어들면(요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 자주 이야기 하되) 그다음 생산자 쪽에 대한 이야기가 저절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서 협동조합이 생산자 측에 대한 하나의 보완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는 협동조합보다는 경영능력 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기업측의 기여를 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참여의 계열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전할 것

이나가 문제인데 기업중에서도 브로일러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료분야와 다음이 도계분야, 그리고 식품유통의 소비분야라 볼 수 있습니다. 60~70년대 공업분야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처럼 브로일러산업도 생산체계 산업구조 자체가 앞서 언급한 대로 기능의 재배치가 이루어져 공업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업측이 이끌어 가야합니다.

특히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분야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기업이 주체가 된다고 해도 사육기능은 생산자에게 맡겨야 하며 기업이 사육체계까지도 침식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체계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협동조합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과 생산자간에 불평등한 거래관계, 즉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독과점력, 비경제적인 요인을 가지는 자본 또는 신용에 의해서 생산자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정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복지 차원에서 농민소득의 최대화를 위해 적극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적으로는 전통적인 생산자의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산업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질 때에 브로일러산업이 하나의 공업화체계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축산업중 가장 빨리 기업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로일러산업 입니다.

기자 : 2천년의 청사진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박영인 : 첫째가 브로일러산업의 특징입니다. 먼저 생산측면을 보면 소자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생산 cycle이 7주 정도로 단기라는 점입니다. 이 두가지 만을 보아도 브로일러 생산은 증·감어 용이하여 가격의 진폭이 커 불

안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의 타분야와 비교해도 브로일러는 이러한 생산의 기본적인 특징이 가장 뚜렷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산물이 도계되어 유통이 이루어 진다는 2차 과정도 소동물이기 때문에 생계유통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유통 자체가 무질서해 집니다. 심지어 소비자도 도계가 가능할 정도 입니다. 타육류에 비해 값싸고 요리가 간편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수급과 소득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어느 산업이 안정된다는 것은 생산단계, 도계유통단계, 소비단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산업구조면에서 살펴본다면 현재의 브로일러 산업은 경영자체가 비계열체제로(혹은 비통합체제로)이루어져 있어 이를 단계별로 보면

1. 생산자재단계 : 병아리, 사료,약품, 시설자재 등 2차산업 제품과
2. 농장단계 : 사육관리, 질병관리



3. 도계단계 : 상품화과정

4. 유통관계 : 도계유통, 생계유통

5. 최종소비단계

전부 독자적인 경영으로 자기 이윤추구가 사업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각 단계간에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 단계별로 생산품이 닭고기라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가 아닌 또하나의 상품이기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단계의 기능이 독자성을 띠고 있어 개선을 이룬다고 할 경우 제가꿈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통분야는 유통만, 약품쪽은 질병에 대한 것만을 일편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산업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자 :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2천년대의 청사진에 대한 접근방법은 무엇입니까?

박영인 : 현재의 비통합구조가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통합구조로 개편될 것이냐는 일반기업의 통합원리와 경험을 그대로 원용하면 됩니다. 브로일러산업의 통합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산업에 연관시키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한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2만가지의 부품을 따로따로 생산하듯이 닭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부품 자체는 상품이라 보고 있지 않고 자동차를 상품으로 봅니다. 그런데 브로일러산업은 각 부분 자체가 상품화 된다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브로일러산업에 있어 상품은 단 한가지 닭고기 뿐입니다. 닭고기만이 하나의 상품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의 과정은 모두 부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형태의 값싸고 영양가 높으며 위생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조립라인으로 모든 분야를 끌어 들이는 것이 통합구조개편의 진행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1. 비통합이 부분통합으로 발전
2. 부분통합이 완전통합으로 발전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청사진은 일단 완전통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분통합이니 완전통합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산업전체가 어느 단계는 부분통합만 있고 또 그 단계가 지나면 완전통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비통합, 부분통합, 완전통합이 공존하게 됩니다. 현재도 세가지 형태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사료나 부화장이 사육자와 고도관계를 이루고 있는것은 부분통합으로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통합이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서로 기능이 연계되어 완전통합 형태로 발전되어 가게 되는데 그래야 산업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당한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혁신적인 선구자가 필요하고 위험부담에 대한 해결방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완전통합이 지연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일러 산업이 완전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다원화가 이원화가 되고 하나는 1차 산업위주의 사육부분에 다른 하나는 기타 2차·3차 산업 위주로 나누어져 업무가 분담되어 자기분야만 열심히 하면 되고 종합적인 조정은 계열주체회사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계장을 중심으로한 인체의 몸과 같이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생산소비조정에 연결하여 수급조정이 가능해집니다. 2차·3차 산업기능을 계열회사가 대신해주고 1차 산업기능만 사육자에게 맡겨 투기 산업에서 안정적인 산업으로 앞날을 전망하고 예상과 기대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 너무 밝은 희망적인 말씀을 들으니 흐뭇하고 희망과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확실히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청사진에 관한 확신 및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인 : 이것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21세기 초기에 브로일러 산업의 위

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완전통합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셉니다.

60년~70년대는 수출주도적인 산업구조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고도산업, 첨단산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첨단산업화 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도태되리라 봅니다. 즉 고도화되는 과정은 우선 경쟁력이 있어야하고 능률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의 변화로 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압력 때문에 변화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압력이란 기술·경제적인 압력 두가지가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게 마련이고, 경제적인 압력은 경쟁력과 능률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외부압력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구태의연한 농업방식으로는 견딜 수 없고 해결책으로는 통합체계 밖에 없습니다.

(2) 한국의 실정과 관련된 것으로 브로일러 산업의 수준과 앞으로의 능력으로 보아서 외부압력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득이 3천 8백~4천불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브로일러산업은 완전히 전업화·기업화될 것입니다. 소비도 이때에는 외식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고 간편식 위주와 위생문제, 가격경쟁이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점이 없는 상품은 자연 도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도산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도산업은 “모든 자원이 이윤이 큰 곳으로 흘러가는 그기준”에 의해서 고도산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닭고기를 먹는 것이 이익이나?

어떤 방법으로 먹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수요를 정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의 편익(便益)에 적응하려면 통합체제가 아니고서는 현재로써는 다른 더 좋은 제도가 없습니다.

(3) 외국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인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에 관계되는기술과

경제는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도 우리와 같은 경험을 지나 농업중 가장 효율화해서 브로일러산업을 공업화 하였습니다.

우리의 21세기초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통합체계를 바탕으로 볼 때 그들의 경험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즉 실증적 경험을 도입해서 21세기에 청사진의 확신과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 : 그런데 왜 우리는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인 : 이 부분이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5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 우리나라 사람의 국민성이 제도개선에 보수적 입니다. 기술도입 자체는 간단하지만 제도개선은 사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실행에 시간이 걸립니다.

둘째 :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브로일러 산업하고 연관있는 사람들 끼리의 상호 불신문제, 신뢰성 결여로 신용사회에서 계약하에 기능분담에 적응이 되어있지 않고 독자경영을 좋아 합니다.

셋째 : 제도개선을 실천한다고 할 경우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과의 경쟁은 쉽지만 새로운 방법은 생리에 잘 안맞습니다.

비농업분야에서는 모험산업에 정부가 투자하고 자금을 융자해 주어 위험부담을 일부 분담해 주는 것처럼 우리분야도 이렇게 되도록 초기에는 정부가 혜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만 살피게돼서 지연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째 : 사육자의 태도인데 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체가 없음이 아쉽다.

다섯째 : 지원기관인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좋은 예로 농지정리의 성공은 적극적 지원의 결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브로일러 산업도 구조개

선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도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원기관의 협조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 대로 기본적인 국민성에서부터 브로일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업적 경영적인 아이디어, 몸에 배어있는 패턴, 그리고 사육자, 정부기관, 기타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현재 구조개선의 필요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법론과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하며 그중에도 사료업체들의 참여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사료의 원료가격이 싸고 가축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원료가격이 인상되고 양축업이 주춤해지는 현상이 나타날때 즉 시장 제한을 받게될때 사료공장들의 타개책은 고객확보의 구조개선에 앞장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오히려 미온적인 상황이 시간연장만 될뿐 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최근 업계도 나만 잘되겠다는 자기성취의 철학이 우리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協同 共生 共存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점차 느끼고 있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갈 철학을 가진 젊고 패기있는 리더쉽 그룹이 필요합니다.

기자 : 장시간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브로일러 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성장산업으로 21세기에는 젊은이들의 선망이 되는 농기업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로일러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될날도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브로일러산업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 1986. 8. 9 박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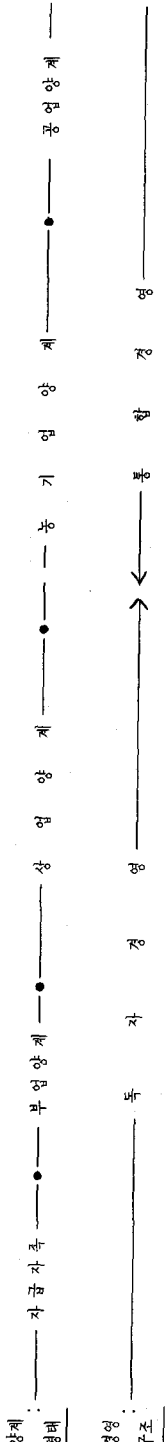
년대	1907	1950	190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85
----	------	------	------	------	------	------	------	------	------	------	------	------

수소:	(500)	(1억)	(2억8천만)	(3억6천만)	4백만	1억4천만	6억3천만	18억	30억	40억	45억
()	채란 포함										

1인당소비 :
(kg)

	-	-	-	-	(7)	1	4	11	17	21	25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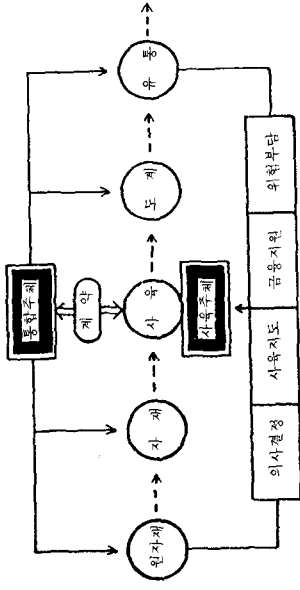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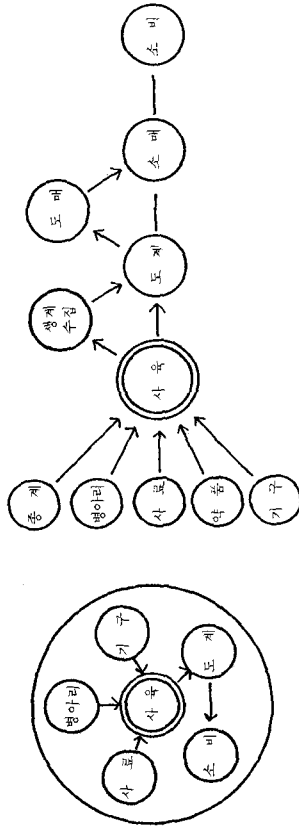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양계
탐도입	채란계개발	대형부화기	캐비넷부화기	육재개발	가금육종	균형사료	고도육종	집중생산	Further	Chicken		
발견	인공부화	생체적거레	병아리우송	진기부화기	사로5:1	주방제	기계화	자동일관체계	Pressed	Nuggets		
	지온설비	상업광고	기차수송	육재전용사료	도계장	군수양제	체육국경검사	생체육종단	Breast			
	가금학강좌		기술지도	트리수송	New York	Chicken of Tomorrow	경매시장	Ready to Cook	Filet			
	양계잡지		단기양계학교	생제시장	Dressed	range	양계경영학회					
	가금협회				paralysis	체육양동	Contest National	Broiler Fast				
					coccidiosis	장거리트럭	National Broiler	Food				
					pulorum	수퍼마켓	Poultry Council	학교급식				
						Broiler Day	Improve-Broiler					
							ment Industry					
							Plan Advisory					
							대량유동					
							Conference					



문제점: 1. 기업유리, 사육열위불완전경쟁 2. 기능비연계생산지하 3. 수급, 가격, 소득, 산업불안정

통합 단계: 비 통합 ————— 시 도 ————— 배 동 ————— 시 현 ————— 경 차 ————— 발 진 ————— 안 경

체계:



통합 효과:

1. 기능분담이해보수
2. 생산성증대
3. 산업안정

통합순서: 수평통합 → 수직통합 → 순환통합

통합방식: 계약통합 → 소유통합

통합방향: 전진통합 → 후진통합

통합주체: 기업 → 협동조합

통합유형: 비통합 → 부분통합 → 완전통합

통합기능: 자재공급 → 사육지도 → 자금조달 → 생계관매 → 의사결정 → 위탁부담 → 도매 → 유통 → 의식업

통합 기반:

1. 소득 및 소비증가
2. 다양한 조리 및 즉석식품 개발
3. 유통 및 각종 소비자서비스 향상
4. 위생적 도매 및 계육관리
5. 사육의 안정기반
6. 생산자재, 사육, 질병, 도제, 유통부문의 기술개발
7. 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
8. 소요자금의 적시조달
9. 학술연구, 업체단체, 정부의 적극적 지원
10. 계약쌍방간의 높은 신뢰도